



◀올해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919년 최초로 제작된 '의리적 구토'를 시작으로 한국 영화는 관객들과 히로애락을 공유하며 100년의 역사를 이어갔다.

'아리랑' 부터 '신과 함께' 까지 히로애락 100년 '레디 고'

한국 영화 100년

<1>프롤로그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그랑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루미에르 형제가 찍은 10여 편의 활동사진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모여든 사람들은 사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스크린에 투사되는 연속성의 사진, 다시 말해 영화는, 이야기 예술로 거듭나며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매체가 되었다.

영화는 대중들의 현실지각과 환상, 의식과 욕망에 영향을 미치며 강한 호소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영화가 시각적이면서 청각적인 매체일 뿐 아니라,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전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화는 한 시대의 문화이자 소통의 매체가 되었고, 창작자의 예술 작품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제작, 유통되는 산업이 되었다.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조선 최초의 영화로 인정받는 '의리적 구토'가 1919년 10월 27일 상영된 것을 한국영화의 기점으로 삼은 것이 그 근거다.

한국영화는 관객들과 함께 히로애락을 공유하며 관객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

려왔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영화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나운규의 '아리랑'은 뛰어난 예술성을 바탕으로 할민족정신을 담아내며 이 땅의 민중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한국전쟁 후부터 한국영화는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1954년 한국영화 면세조치가 시행되어 수익성이 높아지자 제작 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들어진 '춘향전' (1955)과 '자유부인' (1956)은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영화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 기여했다.

1960년 4·19부터 1961년 5·16까지의 1년 동안은 한국영화의 해방구였다. 김기영의 '하녀' (1960), 유현목의 '오발탄' (1961), 신상옥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1) 등의 걸작이 이때 탄생했다. 또한, '로맨스 파파' (1960)를 시작으로 가족 드라마가 성행했다. '박서방' (1960), '마부' (1961), '서울의 자봉 말' (1961) 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회에 반항하는 건달을 청춘세대로 내세운 '맨발의 청춘' (1964)은 일본영화 '진흙 속의 순정'을 모방했다는 시비도 있었지만, 25만 관객을 동원하며 '청춘영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김수용은 '갯마을' (1965)을 흥행시키면서 문예영화 붐을 이끌었다. 1966년 10편 미만인 문예영화는 1967년에 30편이 제작될 정도로 성행했다. 문예영화는 순수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말하지만, 이후 예술영화 일반을 지칭하는 말로 변화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 '미워도 다시 한번' (1968)이 흥행하면서 '신과영화'가 한동안 양산되었다.

1970년대 TV의 보급과 유신 정권의 검열 강화로 영화산업은 쇠퇴해 90년대 초까지 20년에 걸쳐 장기 불황을 겪었다. 1970년대 대부분의 영화들은 컬러화 되었고, 주된 경향은 저예산 장르영화였다. 하지만 통기타 열풍을 필두로 한 청년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도시 청년들은 '청년영화'를 선호했다. 하길중은 '바보들의 행진' (1975)으로 청년문화의 한 축이 되었고, 이장호는 '별들의 고향' (1974)으로 한국영화 흥행기록을 갱신(46만 명)했다. 김추선은 '영자의 전성시대' (1975)와 '겨울여자' (1977)를 히트시켰는데, '겨울여자'는 5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16년 동안

흥행기록 타이틀을 유지했다.

1970년대 후반은 석래명의 '알개' 시리즈와 문여송의 '진짜 진짜' 시리즈 등 하이틴 코미디의 시대였다. '고교알개' (1976)는 알개 시리즈의 선봉을 맡고 온 영화로, 무려 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하이틴 영화다. 주연을 맡은 이승현, 김정훈, 강주희 등은 당시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다. 이덕화, 임예진 주연의 '진짜 진짜 좋아해' (1976)와 '진짜 진짜 좋아해' (1977)도 이 시기를 주도한 하이틴 영화들이다.

1980년대의 한국영화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충무로는 여전히 영세했고, 박정희 정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전두환 정권은 강도 높은 검열로 한국영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애마부인'은 이런 침체기 속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당시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돌리기 위해 시행한 3S(Sports, Screen, Sex) 정책에 들어맞는 결과였다. 이런 와중에도 임권택은 80년대 내내 작가주의를 연마했고, 한국적 소재를 영화화한 영화들로 해외 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그리고 최초 100만 관객을 돌파한 '서편제' (1993)를 통해 국민감독으로 우뚝 섰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영화계에 진보적 청년 인력이 유입되었다. 박광수, 장선우, 이명세 등은 사회비판적인 의식과 표현에 대한 자의식을 겸비

한 새로운 영화를 세상에 내놓으며, 서구 평단으로부터 '코리아 뉴 웨이브'라고 명명되었다.

1980년대까지 각종 규제로 시달렸던 한국의 영화산업은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을 만들어내면서 르네상스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대중소비사회 속에서 충무로 제작자들은 대기업과 협업하여 기획영화들을 만들어냈다. 1992년 '결혼이야기'가 그 첫걸음이었다면, 1999년의 '쉬리'는 한국영화의 할리우드 근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영화였다. 그리고 20세기 말작에서 한국 영화가 발견한 가장 뛰어난 신인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996)의 홍상수와 '조류독감' (1997)의 이창동이었다. 이후 두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르며 한국영화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2000년대가 시작되자 '실미도' (2003)가 '천만 영화' 시대를 열었다. 이후 한국영화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며 이제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가 해마다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그 지난한 여정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 지면을 통해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른 한국영화의 역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대영<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겨울기차여행

전세열차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해외여행 · 국내여행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하늬문 · 단체여행

골프투어 · 기차여행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코스 1 태백산 눈꽃축제와 등반·하이원스키장 곤돌라투어 기차여행 (무박2일)

날짜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18 1/25 (금)	무궁화호 (전세열차)	22:30 23:00	▶목포역(21:40경) / 나주역(22:10경) / 광주승정역(22:30경) 전철 후 탑승권을 수령 ▶목포역(22:15경) / 나주역(22:49경) 출발 / 광주승정역(23:00경) / 장성역(23:15경) / 정읍역(23:35경) / 익산역(00:00경) 출발 ※ 열차 출발 · 도착 시간은 예정 시간이며, 확정 열차시간은 출발 2일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철도 운행명령이 출발 2일전에 나옵니다.)	석: x
제2일 1/19 1/26 (토)	전세버스	04:43 05:00 05:50	▶태백역 도착 / 태백역 출발 ▶당굴광장 도착 ▶식당 배정 및 식사 (산행준비) ▶당굴광장 출발 / 유일사 매표소 도착(06:20) ① 태백산 등반팀 (유일사 입구 주차장(해발 900m) → 장군봉 → 천재단(해발 1567m) → 단종비각 → 용정(해발 1470m) → 반재 → 석탄박물관 → 당굴광장 ※ 등산 소요시간 약 3~4시간 정도 / 아이젠 빌려 지참! ② 태백산 관광팀 단군성전, 석탄박물관, 눈별매장(개인부담) → 당굴광장 ※ 등반이 힘든 분은 개인적으로 꼭 사우나를 이용하여 개관광장 하시면 됩니다. 당굴광장 도착 후 자유시간 및 자유점식 ▶당굴광장 제2주차장 출발 / 하이원 스키장 도착 ▶하이원 스키장 도착 후 관광 곤돌라 탑승 및 자유점식 - 총 3회 탑승 (하이원호텔 → 마운틴탑 전망대 → 마운틴로노 → 벨리본도 하늘주차장) ▶하이원 하늘주차장 출발 ▶고한역 도착 ▶고한역 출발 익산역(20:36경) / 정읍역(21:03경) / 장성역(21:23경) / 광주승정역(21:38경) / 나주역(21:50경) / 목포역(22:26경) 도착	조:○ 중: x 석: x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철도공사 및 현지 사정으로 일정 · 코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개인경비	성 인			소 인		
	광주승정역출발	나주역출발	목포역출발	광주승정역출발	나주역출발	목포역출발
	120,000원	122,000원	130,000원	90,000원	92,000원	100,000원

** 참고사항 **
※ 태백산 축제기간: 2019년 1월 18일 ~ 2월 3일
※ 포함사항: 왕복 무궁화호 열차비, 현지차량비, 조식 1회, 현지입장료(태백산/하이원관광곤돌라)
※ 불포함사항: 식사비(중식 1회, 석식 1회), 여행자보험

코스 2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곤돌라투어 기차여행 (무박2일)

날짜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18 1/25 (금)	무궁화호 (전세열차)	22:30 23:00	▶목포역(21:40경) / 나주역(22:10경) / 광주승정역(22:30경) 전철 후 탑승권을 수령 ▶목포역(22:12경) / 나주역(22:48경) 출발 / 광주승정역(23:00경) / 장성역(23:15경) / 정읍역(23:35경) / 익산역(00:00경) 출발 ※ 열차 출발 · 도착 시간은 예정 시간이며, 확정 열차시간은 출발 2일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철도 운행명령이 출발 2일전에 나옵니다.)	석: x
제2일 1/19 1/26 (토)	전세버스	04:43 07:00	▶태백역 도착 후 버스 탑승 및 이동 ▶정동진역 열차 도착 정동진 자유시간 및 자유조식(일출 예정시간 07시 37분경) (모래사개공원(사계봉, 십이지상), 모래사개(고한정)소나무, 정동진 사비, 정동진 해수욕장 등) 09:00 ▶정동진역 전철 후 주차장 이동 및 출발 10:00 ▶애국가 첫스톱의 배경의 추암 촌대바위 해수욕장 주차장 도착 후 관광 11:00 ▶추암 촌대바위 주차장 출발 12:00 ▶하이원 스키장 도착 후 관광 곤돌라 탑승 및 자유점식 - 총 3회 탑승 (하이원호텔 → 마운틴탑 전망대 → 마운틴로노 → 벨리본도 하늘주차장) 15:30 ▶하이원 하늘주차장 출발 15:50 ▶고한역 도착 16:08 ▶고한역 출발 익산역(20:36경) / 정읍역(21:03경) / 장성역(21:23경) / 광주승정역(21:38경) / 나주역(21:50경) / 목포역(22:26경) 도착	조: x 중: x 석: x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철도공사 및 현지 사정으로 일정 · 코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개인경비	성 인			소 인		
	광주승정역출발	나주역출발	목포역출발	광주승정역출발	나주역출발	목포역출발
	120,000원	122,000원	130,000원	90,000원	92,000원	100,000원

** 참고사항 **
※ 포함사항: 왕복 무궁화호 열차비, 현지차량비, 현지 입장료(하이원 관광 곤돌라)
※ 불포함사항: 식사비, 여행자보험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지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